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프로야구 전망대

양현종

김진우

KIA 타이거즈 V 6연전 원정길

독수리·거인 몰이 양김이 뜬다

〈양현종·김진우〉

오늘부터 대전서 김응용·선동열 사제대결
주말 부산 3연전 김주찬 친정팀 상대 관심
연승 노리는 KIA, 양현종·김진우에 기대

개막전 연패를 끊어낸 KIA 타이거즈가 연승가도를 위한 짐을 꾸렸다.

안방에서 프로야구의 봄을 알린 KIA가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하기 위해 원정 6연전에 나선다.

넥센 히어로즈와의 개막 2연전 성적은 1승1패. KIA는 시즌 첫 경기에서 10-9의 극적인 승을 연출하며 지독했던 개막전 8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광주일고 빅리그의 빅매치는 서재응의 패로 끝났지만 지난해와 다른 타선의 뒷심은 타이거즈의 공격 야구를 예고했다.

KIA가 이번 주 만나게 되는 상대는 지난 주말 지옥과 천당을 오간 한화와 롯데다.

한화는 호화 벤치에 비해 덕아웃 전력은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다. 앞선 두 경기에서도 투·타의 2% 부족한 전력으로 9회말을 넘기지 못하고 5-6패를 기록했다.

롯데도 이틀 연속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지만 예전의 화끈한 방망이는 아니다. 지난해 이대호가 일본 무대로 떠났고 올 시즌에는 김주찬과 홍성흔이 빠졌다.

가장 먼저 대전과 사직 3연전에 출격하는 양현종과 김진우의 어깨에 KIA의 연승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KIA는 앞선 두 경기를 통해 묵직해진 타선의 힘을 보여줬지만 허약한 불펜과 에이스의 부재로 마운드가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다.

출격날짜를 기약할 수 없는 윤석민을 대신해 좌완 임준섭이 로테이션에 진입했고, 부상에서 탈출한 김진우가 서둘러 복귀를 하면서 일단 5명의 선발진을 채우기는 했다.

하지만 최강 선발진을 자랑했던 지난해에 비하면 윤석민과 앤서니가 빠진, 변수가 많은 선발진이다. 양현종은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2년의 부진을 털어내는 구위를 선보였지만 제구와 이닝이 관건. 임준섭도 배짱투로 선동열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진짜 무대' 경험이 없는 중고 신인이다. 두 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1군 복귀 준비를 끝낸 김진우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만큼 '감잡기'가 숙제로 남아있다.

완성되지 않은 중간 계투진을 감안하면 선발, 특히 3연전에서 가장 먼저 나서는 1선발의 역할이 중요하다.

양현종과 김진우가 얼마만큼의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3연전의 남은 두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여유가 달라지게 된다.

타선에서는 김주찬이 눈에 띈다. 개막 2연전에서 김주찬은 부진했던 톱타자 이용규를 대신해 부지런히 밥상을 차리며 공격의 물꼬를 텄다. 또 주말 친정팀 롯데 마운드를 겨냥하게 된 만큼 김주찬의 발에 눈길이 쏠린다.

한편 이번 주 KIA의 3200 홈런과 3800 도루 그리고 이용규의 1000 안타 도전이 이뤄진다.

기동력과 힘을 더한 KIA는 주말 2개의 홈런과 5개의 도루를 만들어냈다. 프로야구 두 번째 3200홈런에는 4개가 남았고, 사상 첫 3800 도루 기록에는 18개가 부족하다. 또 이용규는 앞으로 5개의 안타를 더 때려내면 64번째로 1000안타를 채우는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00안타를 향한 카운트 다운(-5)에 들어간 톱타자 이용규.

프로 첫 출격을 앞두고 있는 두둑한 배짱의 중고 신인 임준섭.

친정팀 롯데의 안방에서 KIA의 호랑이 본능을 깨울 김주찬.

"나도 밥값은 해야죠" … 광주서 첫 승 김병현의 '썩소'

그라운드 Talk & 톡

그라운드에 봄이 왔다. 아니 개막전 그라운드는 불붙은 타선에 화끈한 여름이었다.

곳곳에서 터진 홈런포, 삼성 배영수는 두산과의 개막전에서 두 개의 만루홈런을 내주는 불명예 기록을 썼다. 프로야구 최초의 기록은 아니다. 험난한 재활을 끝내고 삼성 투수로 재탄생한 신용운이 KIA 마운드를 책임지던 2003년 6월, 한화에 연달아 만루포를 내주고 고개를 숙인 적이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찬호가 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빅리거 박찬호는 LA 다저스 시절이었던 1999년 한 이닝 연속 만루홈런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만루홈런은 아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연속 피홈런이 있다. 이틀 연속 3개의 홈런포를 얻어맞았던 투수. 2001년 월드시리즈를 명승부로 만든 김병현의 이야기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방울뱀' 김병현은 이해 가을 '꿈의 무대' 빅리그를 뛰어넘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월드시리즈 무대까지 밟게 된다.

2승1패로 애리조나가 뉴욕 양키스에 앞선 상태에서 맞은 4차전. 8회 2-0에서 등판한 김병현은 별명처럼 현란한 공으로 탈삼진을 의미하는 KKK를 찍었다. 그러나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은 9회 2사1루에서 티노 마르티네스에게 던진 공이 담장을 넘어가고 말았다. 10회에는 데릭 지터에게 역전 홈런을 맞으며, 김병현은 역적이 됐다.

5차전에도 김병현이 있었다. 2-0으로 앞선 9회 또 김병현이 호출됐다. 첫 타자에게 2루타를 내줬지만 땅볼과 삼진으로 투아웃.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스캇 브로시어스의 타구가 이번에도 담장 밖으로 사라졌다.

멀리 날아가던 공 그리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마운드에 주저앉던 김병현의 모습은 여전히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다. 어디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사람이 나뿐일까? 숨죽이며 김병현을 지켜보던 한국의 수많은 야구팬들도 함께 머리를 감쌌다.

어찌됐든 김병현은 루이스 곤살레스의 극적인 7차전 끝내기 안타로 해피엔딩을 맞았다. 미국의 가을잔치를 들썩이게 하며 아시아인 최초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꼈다.

IMF여파로 얼어붙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 김병현은 구세주였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이 빅리그의 강타자들에게 짓던 가소롭다는 표정은 우리에겐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다. 춤을 추던 그의 공에 하나씩 올라가던 'K'는 자부심이었다.

흔히 말하는 '썩소'의 김병현이 고향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표정은 여전했다. 그를 '나쁜 남자'로 만들었던 그래서 더 매력 있었던 표정. 공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나오는 표정이라는 그 표정.

마운드 밖의 김병현은 어색할 정도로 푸근하다. 초인종을 누르면 무릎이 늘어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문을 열어줄 것 같은 옆집 오빠 같다. "밥값은 해야죠. 비싼 밥값인데"라고 웃는 모습은 정말 딱 옆집 오빠다. 참고로 김병현의 올 시즌 연봉은 6억원이다.

김병현에게 고향 마운드는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박살이 나서 갔다"는 그의 말처럼 그날 성적은 1.1이닝 6안타 5실점으로 처참했다. 그때도 김병현의 등장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번에는 상대 마운드에 서재응이 있어 더 화제가 됐다. 내놓을 것 없는 광주에서 그나마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빅리거 3인방이다. 광주일고 3학년 서재응, 2학년 김병현, 1학년 최희섭. 광주일고 유니폼 대신 KIA와 넥센의 유니폼을 입고 이들이 나란히 무등에 섰다.

수많은 이들을 TV앞에 앉게 했던, 숱한 직장인을 '월급 도둑'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재회. 시간이 흘렀다. "몇 년 만이죠?"라고 최희섭이 되물을 정도로 까마득한 추억이 됐다. 추억의 한 페이지를 뒤적이게 한 2013년 3월 31일의 김병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995년 제 50회 청룡기 결승에서 덕수상고를 상대로 5-3 승리를 이끈 광주일고의 빅리거 3인방 (원내 사진 왼쪽 최희섭, 가운데 김병현, 오른쪽 서재응). KIA의 안방마님 김상훈과 NC에서 제 2의 야구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내야수 이현곤의 모습도 눈에 띈다.

차명진 완봉투 … 순천 효천고 4연승 '휘파람'

고교야구 전라권 주말리그

순천 효천고가 지난 30·31일 여수 진남구장에서 진행된 주말리그 전라권 3주차 경기에서 군산상고와 진흥고를 상대로 2승을 추가하며 4연승을 달렸다.

지난 31일 군산상고와의 경기는 숨막히는 투수전이었다. 1회말 2사에서 효천고 3번 김만수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도루로 2루까지 내달렸다. 포수의 악송구가 나오는 사이 김만수는 홈을 밟았다. 팀의 선취득점이자 결승득점이었다.

올 시즌 고교무대 대어로 평가받는 차명진이 효천고 선발로 나서 9회까지 군산상고 타선을 틀어막으며 1-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차명진은 9회까지 2피안타 3사사구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고, 탈삼진은 10개를 뽑아냈다.

효천고는 전주고와의 경기에서는 장단 11안타로 7점을 만들며 7-2 승리를 거뒀다.

진흥고도 2승을 더하며 2승2패가 됐다. 30일 '난적'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양팀은 9회까지 점수를 내지못하면서 12회 연장 승부치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12회초 1사 2·3루에서 진흥고 9번 김유신이 우측 담장을 넘기며 3-0 승리를 이끌었다. 진흥고는 화순고와의 승부에서도 8-3승리를 챙겼다.

광주일고는 광주 라이벌 동성고와 진흥고의 경기에서 1승1패를 수확했다. 광주일고의 전적은 3승1패가 됐다.

군산상고와 화순고가 각각 2승2패, 신생팀 정읍 인상고가 1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동성고는 1승3패가 됐고 전주고는 3연패에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진군 연합팀 청자배 사회인야구 2연패

강진군 연합팀(이하 강진군)이 사회인 야구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강진군이 지난 30~31일 강진 베이스볼 파크에서 열린 '제5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광주 남광주JC를 14-5로 누르고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상(MVP)은 타격과 수비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조신현(강진군), 우수 투수상은 박인권(강진군)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 타격상은 권영삼(광주 삼호의료재단), 최다 홈런상은 이대로(대전 키티호크스)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전북, 경남, 광주, 제주, 전남 등 전국 10개 권역에서 16개팀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이호연 강진군 야구연합회장은 "강진의 야구문화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